

계속 필요한 일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죠

철강업에서도 '상식' 이 이겼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필요한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얘긴데 그동안 대기업들이 앞장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순천, 광양의 철강 업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광주고등법원은 (주)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2년 이상 일해온 노동자 15명이 모두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현대제철(주)의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161명이 모두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규직화 소송, 바람이 불니다

지난 10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 노동자 40여명이 2차로 정규직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3차 '집단 소송단' 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 소송 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엔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협력업체 노동자 233명이 2차 집단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이젠 거의 모든 현대제철 순천공장 협력업체 노동자가 정규직화 소송에 함께합니다.



(외주파트너사)

포스코 협력업체에 다니는 지인에게 격려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아져 버린 '헬조선' 대한민국. 우리 자식들마저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서 안 됩니다.

15만명이 사는 광양시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약 1만명입니다. 지인 중에 포스코 협력업체에 다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정규직화 소송에 함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요. 이 소송은 노동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로 가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차별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포스코를 바꿔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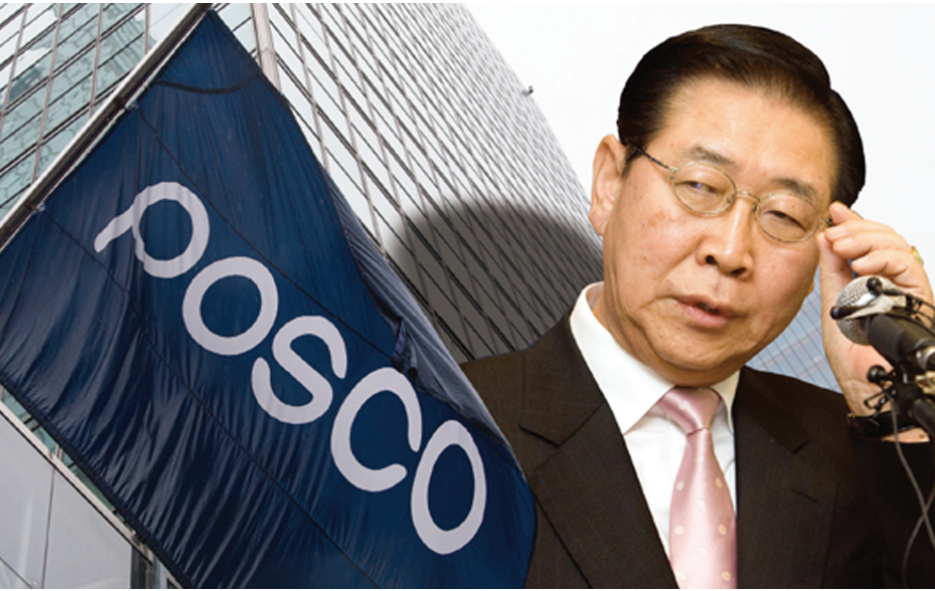
소송참가 문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061) 762-2956
010-4877-6670

포스코를 바꾸면 우리 삶도 바뀝니다

정권마다 비리 회사이는 포스코



검찰, 정준양 전 회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지난 27일 정준양 전 회장이 유착관계에 따라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포스코에 1,6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외에도 정 전 회장은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 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 해달라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12억원의 이익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에 무려 49억원 기금 출연

포스코는 미르재단에 30억원, K스포츠에 19억원 총 49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포스코는 “미르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때, 이사회에 앞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부 규정조차 어겼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전 창조경제 추진단장)은 포스코그룹 광고계열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회장과 포레카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조사 결과를 적시했습니다.



노동자의 피땀으로 세운 기업 포스코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지켜봅시다